

MBC 「기분좋은 날」- 원조 한류가수 김연자 편

▶MBC 「기분좋은 날」 2009년 1월 13일(화) 오전9시45분 방송분

일년만에 한국을 찾은 가수 김연자씨. 그녀가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갖기로 했다는데... 엄마와 동생 그리고 평소 가족처럼 허물없이 지낸다는 음반 제작자까지 모처럼 식사를 함께하기로 한 것.



[김연자氏] 일본에서는 주로 외식을 많이 했어요. 일본에 20년 가까이 있었지만 일본음식을 좋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피곤하고 이럴 때 한국음식이 간절히 생각나죠.

[김연자母] (김연자氏가)어릴 때는 계장, 조기, 갈치 같은 것을 참 좋아했어요.



어머님이 해 주신 계장과 호박전을 가장 좋아한다는 김연자씨. 일년만에 찾은 한국에서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니 그 감회가 남다르다고... 이날의 주 메뉴는 오리고기. 재료는 하나지만 조리법이 다양하다는게 놀랍다는 김연자씨.



오래간만에 맛보는 한국 음식에 절로 감탄이 새어나온다.

[김연자氏]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음식 파는지 모르겠네요.

[김연자母] 우리나라에는 마트에서 오리고기 파는데...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

평소 소박한 식성을 가진 김연자氏. 오늘은 특별히 딸의 영양보충을 위해서 어머니가 마련한 자리라고. 맛 있는 오리고기로 한층 정겨운 자리가 되어 더욱 기분이 좋다는 김연자씨의 미소에서 행복이 느껴진다.

